지방시대 앞당기는 콘텐츠…문화 · 예술 · 관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55년 경북 김천서 태어났다. 이철우 지사는 1978년 경북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화령중학교, 신평중학교, 단밀중학교서 수학교사 생활을 했다. 이후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해 2005년 국가정보원 국장 요원으로 근무했다. 2004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행정학 석사) 했으며, 2005.12~2006.6. 제7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2006.7~2008.2. 제8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2008.5~2012.5. 제18대 초선 국회의원에 이어, 2012.5~2016.5. 제19대 재선 국회의원, 2016.5~2018.5. 제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4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에 이어 7월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오른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제32대 경상북도지사(초선/민선 7기)에 당선됐으며, 2022년 7월에는 제33대 경상북도지사(재선/민선 8기)에 성공했다. 2007년에는 홍조근정훈장 수훈을 했다.

리더에게 聽 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망국적인 '수도권病' 해결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화 시대 열겠다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 조성할터

통일신라 5소경 그 해결책 있어

대한민국 일류 국가되는 지름길

경북이 만들어갈 지방시대는?

'문화 · 예술 · 관광'에 지속적 투자

한복 한옥 한식 한글에 디지털 입힌다

천년의 신라왕경도 메타버스로 복원

건축문화 '경북형 천년건축물'로 혁신

대담 · 정리=김주일 편집국장, 사진=노덕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 6일 도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을 통해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의 3대 방향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메타버스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새로운 영토를 창출하는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 특화사업으로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한 경쟁에 직면한 경북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철우 지사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경북지사를 지내고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했다.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경북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 지사는 문경 세계명상마을 건립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전통사찰 974개중 178개로 1위(18.3%)를 차지하는 경북의 행정 수반답게 성파 조계종 종정 예하 등 당대 선지식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本紙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9월 30일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를 직접 만나 지방시대 문화예술정책과 대구경북 신공항 계획, 문경 명상마을 발전방안, 평소의 불교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지사의 바쁜 일정 등으로 인터뷰가 세 차례나 연기돼 가까스로 어렵게 이뤄졌다. 〈편집자 주〉

#경북도정 운영계획은?

△도지사님께서는 망국적인 '수도권 병(病)'을 해결해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 앞에 주어진 가장 큰 시대적 과제라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제안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 병을 치유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병' 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교육 · 문화 · 교통 · 의료 등 수도권과 똑같은 인프라를 만든다면 '수도권병' 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아가고, 50년 넘게 수도권 독주 체제가 지속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가기 어렵죠. 경북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도 지방 살리기는 저의 주요 화두입니다. 그래서 제50회 대한민국 시 · 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저를 회장직에 추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판을 완전하게 바꾸는 혁명적인 방식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등 이 다섯 가지를 동등하게 해줘야 어디에 살든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5소경을 살펴보면 그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 수도인 금성을 비롯해 5소경이라는 작은 서울을 두었습니다. 충청도에는 세종이라는 서울이 있고, 여기에 전라도와 대구 · 경북, 부산 · 경남에 서울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똑같이 해주면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교육, 자치조직권이 필요하죠. 지금의 지방자치 현주소는 '무늬만 자치인 2할 자치' 인 셈이죠.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확대도 필요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경제 · 사회 · 정무수석 참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도지사님께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탈피해 경북의 힘으로 지방 시대를 펼치기 위해 가장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빠르게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과 진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공항을 이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구 · 경북의 경제지형을 변화시키고 국내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세계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건설, 항공 · 드론 전자부품 거점 단지, 중소형항공기 MRO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경제 · 물류 공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항공시장의 주도권 선점이 관건인 만큼 제대로 빨리 짓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경북이 만들어 갈 '지방시대'는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혁신사회'이고, 문화예술의 힘이 경제를 견인하는 '창의사회'이며 아이디어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마다 각자의 색깔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모두가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던데요. 특히 문화예술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문화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기계가 단순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시대입니다. 최고의 부가가치는 문화예술의 힘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문화 · 예술 · 관광' 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지켜온 한복 한옥 한식 한글에 디지털의 옷을 입히고 천년의 신라왕경도 메타버스 콘텐츠로 복원해 세계에 알리도록 할 것이며,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문화도 '경북형 천년건축물' 로 혁신해 대한민국의 미래문화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5
창간특집기획
MZ, 불교를 만나다

B6
창간특집기획
한국불교 매료된 독일 청년 4인방

B7
창간특집기획
애독자가 전하는 축하 메시지